

### 新年辭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찾아 온 황금 돼지의 해다.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재복을 상징한다. 그중에서도 황금 돼지는 길운(吉運)을 몰고 온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한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 모두 또다시 설렘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역시, '황금 돼지'에 한 가득 희망을 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해를 맞아 힘차게 솟아오르는 황금빛 태양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소망이 크다.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들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도 기업인들도 주부들도 회사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모두가 한목소리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으니 큰일이다. 새해에는 제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도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정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는 한마디로 격동과 파란의 연속이었다. '전쟁 위기'가 거론될 만큼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던 한반도 정세는 연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평화 무드로 급변했다. 이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과 평양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적대 종식,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합의했다.

그 성과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거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두 정당의 군사분계선 악수와 도보다리 산책, 백두산 산행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남북의 화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선(先)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과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상황이다. 짐은 무거운데 길은 멀기만 하니, 이제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 온 우리 정부의 북미 간 긴밀한 소통과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하다.

사회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대한 적폐 수사가 이어졌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가 각계각층을 휩쓸었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며 권위적인 문화의 청산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겼다.

2019년 기해년은 모든 게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호남 지역민들에게도 새해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해는 3:1 운동과 대한

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민족 차별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 학생들이 벌였던 1929년 11·3 학생독립운동은 경성과 평양, 함경도와 만주 및 연해주까지 번져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확산됐다. 당시 320여 개 학교에서 5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1600명이 넘게 구속됐고 2900여 명이 퇴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제2의 3·1 운동으로 평가받는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운동의 밑바탕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학생독립운동은 한동안 한 일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우발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으로 치부

되면서 그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념식은 지방교육청 행사로 치러졌고 정부 포상을 받은 유공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다행히 기념식은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면서 정부 행사로 승격됐다. 90주년을 맞은 올해는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활발한 학술연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선양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또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7·8월 광

## 상생의 나라로 지역 발전의 새 동력을

지난해에는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는 10.9% 인상된다. 이들 정책은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조치였음에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겼다. 여기저기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세 축을 기조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는 날로 악화하고 저성장이고 착화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완급 조절은 물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최대의 당면 과제라 하겠다.

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민족 차별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 학생들이 벌였던 1929년 11·3 학생독립운동은 경성과 평양, 함경도와 만주 및 연해주까지 번져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확산됐다. 당시 320여 개 학교에서 5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1600명이 넘게 구속됐고 2900여 명이 퇴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제2의 3·1 운동으로 평가받는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운동의 밑바탕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학생독립운동은 한동안 한 일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우발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으로 치부

주와 여수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209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 행사다. 북한 선수단 참가와 단일 팀 구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낸 광주 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다.

지난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광주·전남의 지방 권력 지형도도 크게 바뀌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행정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면서 일당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대 부지 선정도 한전에 맡기기로 합의하면서 상생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그 이후 군공항 이전은 후보지 지지체들의 반발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도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시도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16년 동안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제시한 점은 큰 성과다. 반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노사민정의 참여 속에 성사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는 막판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의 임금 협상 유예 기간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새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생과 동반 성장의 자세다. 남북 상생과 시도 상생, 노사 상생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 그렇게 상생의 정신으로 군공항 이전이나 한전공대 설립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립 등 지역 현안도 차근차근 이뤄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기 출범으로 발표 명령자 등 남은 의혹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겠다.

광주일보를 올해로 창사 67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적지 않은 세월 늘 그랬던 것처럼,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으로 지역인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 하면서,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의 기수가 될 것이다. 다양한 비전 제시를 통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새 천년을 다시 시작하는 전라도가 높이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을 다짐한다. 새해 아침,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기운이 가득하기(瑞氣集門)를 기원한다.

### 은펜칼럼



한국한  
광주교대 외래교수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지난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평화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 출범 1년 8개월, 지방정부 구성 6개월이다. 이쯤 되면 '촛불 열기'로 인한 희망의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순박한 마음일까?

2017년 5월 대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혁신·개혁을 내세웠던 인물들로 정치·행정 주인공들이 바뀌었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더 만연하고 있다. 그토록 많이 회자되었던 소위 '적폐'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이 횡행하며 세금 도둑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해 '사립유치원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박용진 의원의 발표는 전 국민을 분노시켰다. 당시 삼삼보다 무서운 이

### 특권과 반칙 없는 새해를 꿈꾼다

익 집단 '유치원'을 건드렸다며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진단도 있었고, 교육위의 의원이 임무를 내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도 눈감아온 '별집'을 국회의원 조년생 '하룻강아지'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역시 그 발표 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으며 유아원 모집 금지와 유치원 폐원 등 적반하장적 압포도 이어졌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들뿐 아니라 많은 단체와 조직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을 지금껏 지속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이 혁신·경쟁을 통하지 않고, 배타적, 독점적 혜택을 위해 정부와 영향력 있는 집단을 상대로 이런 일에 경쟁하는 일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비생산적인 일로서 철저히 배척해야 할 악행이다.

지난해 한유총의 반발로 집단 시위가 이뤄졌고, 모 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 하며 투표와 후원금을 의식한 듯한 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학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학부모들은 그들 역시 세금 도둑으로 까리까리 동맹을 했다며 분노

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사적·집단 이익을 앞세운 전 정권의 10년을 '악랄 정치'라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비리 정치인, 악덕 기업인, 귀족노조, 정치·사법 농단주범, 막강한 법률사무소 등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그들 존재와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역시 썩은 권력의 횡포도 세금 도둑이다. 이뿐이라.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정부지원의 여러 법인과 기관, 연구단체, 그리고 해외 외교기관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세금 도둑질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불법·탈법과 각종 갑질, 로비와 후원금, 각종 특활비, 외유성 해외 출장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까지 세비(연 1.8%, 182만 원)를 올렸다. 2016~17년 2년 동안 해외 출장 실태를 보면, 회기 분출장은 부지기수이며,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한 출장, 친선 모인 출장 등으로 2년간 지출된 출장비만 약 95억 원이다. 이 비용 모두 세금일진대 이렇고도 세비 셀프 인상 할 수 있는지? 역시 그들도 뺏겨온 세금 도둑이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세금 도둑들은 참회록을 써야 한다. 출장

비, 특활비, 보조금, 지원금 등은 눈 먼 돈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이다. 여기엔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며 맘 흘린 소득도 들어있다. 그래서 매년 예산 문제로 다들 울고 다니는 예산 집행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각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과 제4차 산업의 선점, 군사력 제고 등을 위해 혈안인데 우리 세금 도둑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으니... 2018년 기준 우리는 인구 5180만 명(세계 27위)이다. GDP 1조 7000억 불(세계 12위), 1인당 GDP 3만 2000불(세계 28위), 그리고 연간 수출 사상 처음 6000억 달러 돌파(세계 7번째)를 면적 10만km(세계 109위)의 나라가 피와 땀으로 이뤄냈으니 얼마나 값지고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불법으로 세금을 훔쳐가는 자들은 퇴출시키고 징벌적 초과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금에 대한 질서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규직 안 해도 돼, 죽지만 않으면" "숨만 쉬고 살아도 빠듯"이라고 외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서글픈 절규가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가?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에 우리 더욱 숙연해진다.

### 無等鼓

연말연시에는 아는 사람끼리 인사로 덕담을 주고받곤 한다. 요즘에는 연하장이나 카드 대신 SNS가 대체다. 한데 재미있는 건 그 내용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주고 받은 SNS 덕담을 보면 유독 활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주고받는 덕담이 예전에 비해 훨씬 줄었다. 개인끼리는 물론 '단독'(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보더라도 많은 덕담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단독방에 누군가 새해 덕담을 올려도 예전처럼 댓글 호응이 할 바퀴질 않는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유력한 것이 '귀차니즘'이다. 생활에 지치고 SNS에 지쳐 그저 '눈팅'(보지만 하고 댓글을 달지 않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 삶을 추구하는 추세에 '귀찮은 것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아닐까 싶다. 가장 두터운 인구층이었던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연말연시 덕담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퇴직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지난해 60세 정년을 맞은 58만 개미 4만2361명에 이어 올해 59년 돼지띠의 경우 4만5673명으로 늘어난다. 2,3차로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1차로 끝나고 회식 장소가 유명 고깃집이나 일식집보다는 작지만 개성 있는 음식점으로 바뀐 것 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다며 호들갑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인

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59년 돼지띠들만 하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지만 바라고 있지 않을까.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돼지는 우리에게 긍정의 동물로 인식돼 있다. 친구가 '건강해야 돼지, 사랑해야 돼지, 행복해야 돼지'라며 새해 덕담을 긍정의 메시지로 보내왔다. '돼지'와 '돼지'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맞춤법을 비틀었지만, 황금 돼지의 해 인상적인 덕담으로 기억에 남는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 덕담

### 마음에서 마음으로...음악과 함께 힘찬 새해 맞이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으로는 해돋이, 제야의 종소리 그리고 '신년 음악회'가 있다. 신년 음악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행사로 약 80년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음악회이다.

빈 필 신년 음악회는 1939년 나치 전선상 괴벨스의 기획으로 시작된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끝없는 과거 청산의 노력과 더불어 빈 필의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이다.

빈 필하모닉의 슬로건인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음악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청중들이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함께 연주하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은 신년 음악회의 명장면이자 전통이 됐다.

또한 특색 있는 연출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음악회 등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 신년 음악회는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지난 몇 년간 소통의 부재를 느꼈던 우리에게 빈 필의 이런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곳곳에서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여러 음악 단체들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음악은 가장 직간접 소통 매체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말처럼 합창과 기운 넘치는 음악을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면 새해의 상승생물한 마음도 날아가지 않을까.

광주시민과 도민 가정이 연초에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꿈·희망·행복을 전달받길 바란다.

<김종현 기획자>

### 기고



김홍식  
광주서부교육장

"혼자 일하셔서/ 오남매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친/내가 자랑스럽다// 어느 곳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몸이지만/ 아픈 몸이 끌고 한글학교에 다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름 석 자도 못 쓰던 내가/ 책을 읽고 영어 수학도 배우니/ 내가 자랑스럽다// 가는 세월 집지는 못하지만/ 죽는 날까지 공부하면서 살려는/ 내가 자랑스럽다/ / 죽어서 가는 세상 있다면/ 거기서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효덕동 이계열, '내가 자랑스럽다'>

며칠 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성과 보고회 행사장 입구에서 만난 시다.

막 글을 배운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그 속에는 일생을 관통하는 삶의 자세와 마음이 오롯이 담겨

###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있다. 지금까지 접해본 그 어떤 시 못지 않게 단순하고 명쾌하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이고 교훈이다. 그 흔하다 흔한 수사나 세련된 기교도 없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통째로 아우른 이 시 앞에서 그 무슨 말을 더하라. 불박이가 되어 한참이나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한평생 자식을 기르고 난 뒤에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웅골진 자부심이 독자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값지고 당당해서다.

그간 문자를 해독하기까지 암호와도 같은 온갖 문자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가슴 치며 답답해 하셨을까? 진즉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읽고 쉽게 쓰는 모습 앞에서는 또 얼마나 몸을 낮추며 서럽게 작아지셨을까? 거기다가 배우고 싶은 허기진 열망은 또 여뿔고. 이런저런 생각을 더해 끝내 헤아리지 못할 추측만 했을 뿐 저 분이 감추어신 삶의 깊이와 수준까지는 실로 가능하기 어렵다. 단지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두 눈을 쥐어뜯으며 풀기 힘든 지독한 암호를 풀려고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이슬 맺힌 실루엣으로 크게 다가올 뿐이다.

기적!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남들이 전 그 저 지극히 평범하기만 한 읽기, 쓰기 했지만 세상이 새롭게 깨어나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렇다. 감히 쳐다보지도 말라며 완벽하게 자신을 소외시켰던 거리의 간판들이 친숙하게 다가오고, 이웃집 대문 옆에 걸린 문패의 기호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있는 의미로 풀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란 말인가. 또 문자가 적힌 쪽지를 들고 낯선 길을 나서는 자신이 어찌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문화의 언저리에서 어설픈게 서성대고 방황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발뺌 댄 채 서툰 몸 짝으며 우쭐우쭐 살아온 나! 60 평생 넘게 살아 오면서 이분만큼의 고통스러운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일이 있었단가. 결코 교만하지 않은 단박함으로 다음 세상까지 가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정녕 무엇인가. 자랑은커녕 부끄러운 일들이 먼저 앞서니 소중한 세월을 허송한 것은 아닌지.

불현듯 까막눈이셨던 숙모님 한 분이 안쓰럽게 떠오른다. 마지못 순간까지 충장로 거리의 그 많은 가게를 다 찾다니

면서 간판은 그저 가게의 위치를 가늠케 하는 표지 정도로만 인식한 채 고단하게 한평생 살다 가신 분이다. 숙모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이름 석 자를 읽고 쓰고 가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당신이야! 학령기가 되어 당연하게 글을 배우고, 한 줄도 안 되는 지식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겸허한 성찰의 기회를 준 보답으로 당신의 시를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혼자 일하셔서/ 오남매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친/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몸이지만/ 아픈 몸 이끌고 한글학교에 다니는/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이름 석 자도 못 쓰던 당신이/ 책을 읽고 영어 수학도 배우니/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가는 세월 집지는 못하지만/ 죽는 날까지 공부하면서 살려는/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 죽어서 가는 세상 있다면/ 거기서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어머니요, 숙모요, 서러운 누이들과 동격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당)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율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